법화종 정상화 첫발…'파사현정' 천명

6월 19일 수도암서 75주년 창종법회

청사 진입 후 첫 공식적 행사
원로·지역교구 스님들 참석
정상화 위한 종도 염원 결집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법화종 창종 75주년법회는 종단 정상화를 향한 종도들의 염원을 모아낸 법석으로 마련됐다.

긴 혼란에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이 창종 75주년을 맞아 종단 정상화를 향한 종도들의 염원을 모아냈다. 지난 수년간 일부 집행부 인사들의 자격 논란과 이해관계에 얽힌 전횡 등으로 쇠락의 길을 걸어 왔던 만큼, 이제는 파사현정의 기치를 내걸고 종단을 바로잡겠다는 원력이 굳건히 섰다.

법화종(총무원장 서리 혜문)은 6월 19일 종정 도선 스님의 주석처인 의성 수도사에서 '법화종 창종 7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 체제의 집행부가 총무원 청사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뒤 처음으로 열린 공식행사다. 집행부는 지난 6월 16일 총무원 청사를 무단점거 중이던 비상대책위 일부 인사들이 종정 도선 스님과 서리 혜문 스님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점거를 해제함에 따라 청사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75주년 창종법회는 법화종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 법석으로 마련됐다. 원로의원 오봉·법진·진덕·혜각·보명 스님이 고령에도 참석했으며, 경주, 강원, 경동, 김창, 제주, 동해 등 전국 지역교구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혜광 스님 등도 함께했다.

이날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은 종단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스님은 "우리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외면하다보니 내부에서 곪아터진 환부가 여실히 드러났고 어느 부위부터 수술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종단 정상화의 길은 멀고 힘든 여정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종단 스님들과 총무원 임원 스님들이 함께 정진한다면 불력(佛力)의 도움과 약왕보살의 처방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계율을 어기고 사바라이죄를 범한 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님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노골화되고 있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의 정상 참작은 없다"며 "종단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법화미래 100년은 요원하다는 자각으로 책임이 있는 자를 일벌백계하겠다. 애종심과 주인의식으로 풍전등화의 종단을 일으켜세우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로의원 보명 스님도 "종단 사부대중 모두가 일심으로 합심해 종정 예하의 가르침을 봉대하고 총무원장 서리 집행부가 종단살림을 이끌어나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며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오늘 자리에서 법화의 새 불교운동을 위한 정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파사현정에 나서자. 원로스님들이 그 길에 동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날 의성 수도암에서 창종 75주년 기념법회가 봉행되던 시각, 총무원 청사를 점거했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성운) 측도 춘천 강선사(주지 성운)에서 창종법회를 진행했다. 비상대책위원회측은 애초 총무원 청사에서 이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집행부 진입으로 점거가 종료되면서 위원장 성운 스님의 사찰인 강선사로 장소를 옮겼다. 법화종 집행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종법상 권한 없이 청사를 부당하게 점거한 채 공찰 주지 임명 등 종무상 월권을 행사하고 종도들에게 강선사 창종법회 참석을 공지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 불교 혁신방안 모색 '첫발'

화합과혁신위, 6월 23일 전체회의서 상임위 구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정립하고 종단 차원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첫 발을 내디뎠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는 6월 23일 서울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3년간의 기획단계에서 활동방향성과 수행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된 만큼, 이날 회의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 논의가 주를 이뤘다.

특히 위원회는 부위원장에 중앙종회 차석부의장 만당 스님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상임위는 위원장 정념 스님과 부위원장 만당 스님, 지우 스님, 법원(정토사) 스님, 대현 스님, 정관 스님, 김상규(前 공무원불자회장)·유승무(중앙승가대 교수)·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화합과혁신위는 기획단계에서 사전 도출한 5개 분야 40개 한국불교 혁신의 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추진할 핵심의제를 선정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의제는 상임위원회 및 정책팀 연석회의를 통해 선정 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확정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7월 20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1차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한국불교 그랜드디자인을 구상하다' 주제로 진행되며 정념 스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의 '위기의 시대, 한국불교의 과제',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의 '한국불교 과제 해결을 위한 열쇠', 유정길 위원의 '문명전환 시대, 불교의 대응과정 구상과 모색'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 한국불교 혁신을 위한 핵심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논의결과는 9월 중 전체 위원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최종 확정한다.

위원장 정념 스님은 "문명 전환이라는 큰 변화흐름 속에서 한국불교와 우리 종단은 대대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화석화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화합과혁신위는 한국불교와 종단이 나아갈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운데 교학과 교육체계, 수행과 포교 등 각 분야의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까지 살피고 고민해 우리사회 속 한국불교와 종단의 진정한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 마곡사, 7월15일 개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7월 15일 열린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탄공)는 최근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주지 입후보자 자격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만 70세 미만의 비구스님으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말사 주지로 8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으로 4년 이상 재직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 △선원법에 의해 규정된 전문선원에서 20안거 이상 성만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교역자로 10년 이상 재직 등이다.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5일 오후 5시까지다. 거주승 신고기간은 6월 22일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며, 구성원 명부 열람기간은 7월 6일부터 8일 오후 5시까지다. 송지희 기자

백만원력, 디지털 기부로 모금 다변화

6월 22일 5차 회의서 논의
키오스크 불전함 기부메뉴
디지털방식도 추가로 예정



백만원력 발우저금통 배포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계종 백만원력결집불사 모금이 모바일과 디지털 방식 등으로 다변화된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위원장 금곡)는 6월 22일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백만원력결집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반기 백만원력결집불사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사업방향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백면원력결집불사 홍보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해 모바일 SNS를 활용한 비대면 홍보 강화와 동참회원 확대를 위한 모금 개선책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동전, 지폐 등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 흐름 속에서 저금통 모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원모금 결제시스템 탑재 방안이 제시됐다. 현행 저금통 모금과 함께 정기후원, 비대면 SNS 활용 동참 방법 등의 확대다.

백만원력결집위원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저금통 위주로 모금을 하는데, 이젠 나이가 많으신 보살님들도 동전을 잘 쓰지 않는다. 모금한 동전을 받아 주는 은행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한다"며 "CMS를 비롯한 다양한 모금 방식을 도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금석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은 "저금통 모금액이 생각보다 적다. 작은 사찰의 경우 저금통 모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며 "자동이체 등을 도입하면 지속적인 불사동참도 가능할 것 같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백만원력결집위원회에서는 자료를 통해 최근 도입되고 있는 사찰 디지털 불전함, 사찰 키오스크 등에 백만원력결집불사 후원코드를 넣는 것을 사찰에 제안하고, 후원 사이트를 개설하여 정기후원이 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후원자 감사카드 및 선물 증정, 소식지 배포 등의 계획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위원장 금곡 스님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홍보 강화와 함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액기부 확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부 피드백 등으로 활성화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백만원력결집위원회는 7월 6일 위례 신도시 포교당 착공식, 7월 8일 세종 광제사 입주식, 9월 호국 홍제사 현장시찰, 10월 경주 열암곡 마애불 예경 등을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박용진 의원, '평등법' 입법 의지 표명

6월 21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박용진 의원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6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해 준 불교계에 감사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달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평등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원행 스님은 "평등법의 기본방향과 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특정분야에 대한 논란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 차원의 평등법 입법화 의지를 에둘러 확인했다.

박 의원은 "사실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러가지 넘어야 할 벽이 산적한 만큼 지속적인 격려와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한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입법 취지가 명확한 만큼 여러 오해와 불필요한 논란들은 입법 과정에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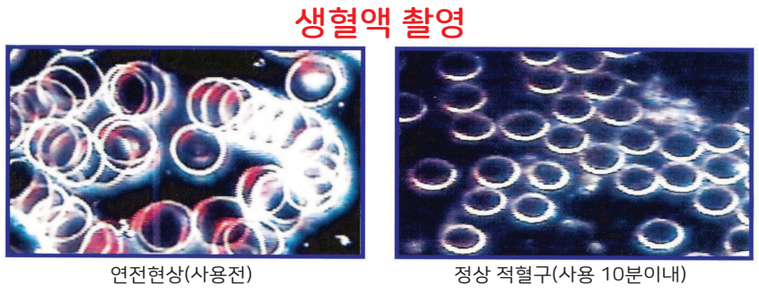
이어 박 의원은 "사회 통합을 위해 상대 종교를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배타적인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교계 격려와 지지가 더욱 필요한 이유"라며 확고한 입법의지를 드러냈다.

원행 스님은 "종교계 갈등은 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법이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격려했다.

송지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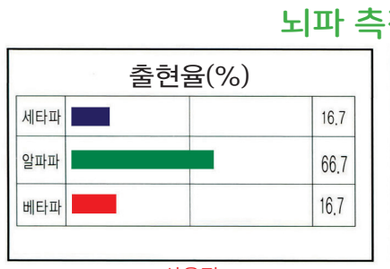
세정제인 비누가 감기, 몸살,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과 아토피, 무좀을 없애주며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비누!!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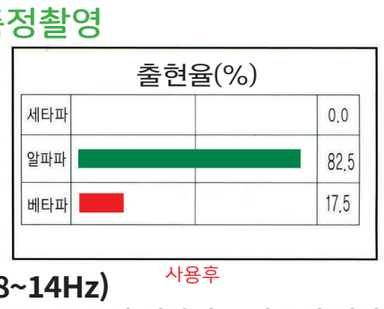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폐렴균, 포도상구균, 대장균 99.9% 정균 감소 기능을 지닌 비누

체험사례
◎ 개발자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를 90년대 말에 개발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20여년간 감기나 몸살로 약을 먹어본 적도, 드러누워 본 적도 없이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 BLOOD MATE®를 사용하기 전에는 안경을 써야 신문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안경을 쓰지 않고 신문을 보고 있으며 눈동자에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 BLOOD MATE®를 설명서대로 사용하고 누워있으면 세포 움직임(혈액순환)이 손바닥에서 스물스물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혈액을 맑게 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어깨, 목, 허리 통증을 없애주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비누 : 120g 12개 300,000원
ORAL MATE® 치약 : 120g 3개 63,000원
363,000원 ➡ 100,000원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